

自然保護로 나라사랑

自然은 微妙한 造化를 이루고 있어 地球上의 生態系는 自然法則에 따라서 共存이 維持되고 있다.

人類는 이곳에서 征服의 歷史를 展開해 왔으며 破壞와 再建이 거듭되는 동안 文化가 形成되 왔다.

西部의 開拓史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지만 開拓者는 삶의 터전을 찾아서 西部로 갔고 인디언들은 그들의 生存財인 西部의 땅을 지키려고 生命을 걸고 決死的 抗爭을 폈다.

開拓者의 目的은 鐵道를 깔고 農土를 일구고 鑛山을 開發하는 自然征服者이며 環境 開拓者들이고, 인디언의 處地는 그들의 사냥터요 農土를 지키며 조용히 살겠다는 生存權의 抗爭이다.

兩者 모두가 그들의 目的이 分명한 生存競爭者들이다.

우리는 祖上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三千里 疆土에 살고 있다. 이 江山은 내것인 동시에 겨레의 遺産이다. 또한 우리民族의 根源的인 生存財요 祝福의 땅이다.

우리國民은 나라 사랑하는 一片丹心에서 「東海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달토록 하느님이 保護하사 우리나라 萬歲」를 부른다. 이 얼마나 敬虔하고 아름다운 愛國心의 告白인가?

民族의 繁榮과 子孫萬代의 繼承을 念願하는 懇切한 마음 가짐일 것이다.

마르고 달토록 이란 悠久한 歲月을 말함인 줄 안다. 그런데 人類의 安息處인 地球가 마

르고 달코 破壞되어 가고 있다.

이미 오래前 부터 뜻있는 人士들은 自然保護의 切迫性을 強調해 왔다.

맑은 空氣, 맑은 물, 自然의 森羅萬象이 質量에 均衡을 이루어야만 生態系는 無理없이 存續할 수가 있다.

自然은 일단 破壞되면 回復할 수 없거니와 回復된다 하여도 長久한 時日을 要한다.

自然을 값 없이 享有할 수 있는, 主人 없는 物件視, 그릇된 價値觀을 갖일때 山을 마구 파 헤치고 나무를 마구 베고 汚物을 마구 버려 아름다운 江山을 毀損하는 일들이 오늘날 알게 또는 모르게 恣行되고 있다.

이 같은 自然破壞는 環境을 惡化시키고 있으며 累積될 때 生態系의 衰殘과 사람의 健康을 害치고 生命을 빼앗는 結果가 된다.

今時 눈에 나타나는 것도 있거니와 점차 連鎖反應을 일으킨다는 것은 周知하고 있으면서도 無感覺하게 넘겨 버리는 例가 許多하다.

自然을 保護하자는 理念이나 口號를 누가 反對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를 實踐하지 못할때 自然保護의 傍觀者로서 自然破壞에 同調者가 되고 있다는 것을 覺醒해야 할 것이다.

自然의 眞, 善, 美는 人生을 즐겁게 흥겹게 해주며 精神的인 活力과 創意力을 얻게 해주는 源泉的인 바탕이다.

이 自然을 잘 가꾸고 保護하는 民族이 文化民族이요 그 國家는 有望한 將來를 갖는다.

環境淨化로 겨레사랑

科總會長 金 允 基

즉 自然保護 思想은 愛國 愛族의 思想과 相通하는 것이다.

科學技術이 創達振興되는 國家의 產業은 크게 發展하며 產業의 隆盛은 國力伸張이요 生活의 向上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가 農業을 爲主로 하던 世代는 가고 產業社會에서 發展을 거듭하여 重化學工業을 育成하고 있는 지금 不遠한 時日에 先進工業國 隊列에 들게 될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國土는 開發에 치달고 있어 變貌하고 있다. 高速道路, 밤모스빌딩, 都市計劃, 產業工業基地化, 地域圈形成等 國土의 開發은 눈부시게 變하고 있다.

이같은 發展 裏面에 環境에 對한 憂慮 또한 없지않다. 여기에 擡頭된 것이 生活環境의 問題이고 삶의 質이니 環境의 質이니 快適한 環境要求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크게 憂慮되는 것은 人類 最大의 公敵인 自然環境 破壞의 公害이다. 그간 우리는 經濟建設에 置重 어느程度의 副作用은 甘受내지 容納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自然保護와 人間保護를 위해 環境을 淨化하고 福祉社會에도 눈을 돌릴만큼 安定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온 國民은 環境淨化 와 自然 保護에 自律的인 參加를 해야할 時點에 왔다.

맑은물 漢江水를 되찾기 위해, 서울의 푸른 하늘 맑은 太陽을 恒時 보기위해, 모두가 努力해야 한다.

서울의 公害를 서울市民이 解決해야 함은 지극히 當然한 理이다. 그러나 公害는 어느地域에서 만 막을 수는 없다. 公害는 울타리나 철장으로 막을수 없다. 내집에서 뽑는 매연이 내동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같이, 上流의 물이 下流에 밀어닥치듯 公害는 퍼져간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어떤 위험에 處한다는것은 아니다.

모든 環境公害의 根源은 微微하여 나 하나쯤 뽑은 煤煙 나혼자 버린 汚物이야 하고 대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環境汚染이 國民健康에 害로움을 모를리 없다. 人體에 直接미치지 않는 汚染이라도 生態系에는 영향이 미친다는 計算을 안하는 소홀한 生活態度가 問題이다.

街路樹가 시들고 새소리가 끊긴 곳이 있다면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가 생각만 해도 삭막한 정경이다.

지난 10月 5日 朴대통령 각하께서는 自然保護를 汎國民運動化 할것을 말씀하셨다.

앞으로 더욱 實効性 있는 計劃이 樹立되고 推進되리라 믿는다.

自然을 保護하자면 管理와 團束을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自然保護는 나라 사랑이요 環境淨化는 겨레사랑, 더 나아가서는 人類사랑 운동이라는 覺醒과 새마을 운동의 하나로서 遂行해 나가도록 自律化되어야 할것이다.